여성운동으로서의 YWCA에 바란다

박영숙

1951년부터 89년까지 38년동안 YWCA와 함께 하면서 YWCA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한발 밖에 선 입장에서 "YWCA에게 바란다"라는 말을 해야 하니 선뜻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4년동안 YWCA에 대해서는 겨우 월간지를 통해서 알뿐이어서 과연 적절한 제언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염려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기에 할말이 있을수도 있겠다.

YWCA는 기독교운동, 국제적인운동, 회원의 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회원의 운동으로서의 YWCA운동은 괄목할만 한 발전이 있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것에 비해 여성운동체로서의 YWCA운동은 어떠한가.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다른 평가가 나올수 있을 것이다. 여성운동이라는 여성으로서의 주권회복운동이라고 본다면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의 자기 정체성은 분명한가 하는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YWCA의 상징인 삼각형은 지덕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 개개인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론으로서 여성론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도인의 시대가 아니며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대중의 시대이다. 개인이 당하고 있는 문제도 개인이 해결할수 없고 집단적인 힘으로만 해결할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미묘하게 당하고 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은 차별을 받고 있고 각가지 형태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해결은 단결된 여성의 힘으로서만 해결할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운동의 담당자로서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는 여기에서 할일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때 YWCA는 회원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 여성운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된다.

YWCA는 우리나라의 어느 여성단체보다도 긴 역사와 70주년을 맞이한 운동체이며 전국 47개 도시의 거창(?)조직, 그리고 5만 5천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illegible]~~ 운동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력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그것은 YWCA가 하려고만 하면 못해낼일이 없는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조건을 어떻게하는 그런데 문제는 YWCA가 가지고 있는 힘을 YWCA는 의지만 있으면~~ 회원들은 물론 그밖에 무수한 여성운동체들의 ~~[illegible]~~ 힘을 묶어 낼수 있다. 그리고 그 묶어진 힘으로 ~~여성개개인의 완성된 인격과 행복추구 에 바른 [illegible]~~ 여성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할수도 있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YWCA가 여성의 힘을 결집하고 여성의 주권 회복을 해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의 선구자적 사명을 포기한 것이다. ~~여성들~~ 여성운동은 여성문제를 먼저 깨닫지 못한 여성들을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여성 스스로 주체적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현장으로 끌어내고, 우리 여성들의 요구를 관철하도록 하는 개관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Y의 운동방식은 대중을 주체적으로 조직화하여 실천의 장으로 끌어내기 보다는 일회적인 캠페인 형식의 방법을 선호하였다. 이는 여성대중을 운동의 주체로 인식한 것이 아닌 교양과 계몽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자면 지난 13대 국회에서 통과된 가족법, ~~개정운동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과정에서 YWCA는 Y자체내에서 세미나 토론회 중심의 운동방식을 채택하고 대국회활동이나 대정당 활동 또는 대시위 캠페인에서 Y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압력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가족법개정촉진위원회 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법개정을 위해 국회앞에서 연좌의 시위를 ~~하거나~~ 를 벌일 때에 Y는 그들과 연대하지 않았다. 이는 Y가 독자성을 강조한 나머지 운동의 과제관철을 위해 타 단체와의 연대를 ~~강조하지~~ 소홀히 한 결과로서 ~~[illegible]~~ 여성운동의 과제수행의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성운동이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개별적으로 운동하는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운동이다 ~~민주화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은 그 운동방향의 모호함으로 인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나간 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기나긴 민주화운동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는 YWCA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그 당시 Y가 보여준 활동하던 모습에서 Y운동의 한계와 회의를 가졌던 적이 있다. 더더욱 가슴 아팠었던 것은 국가폭력에 의해 한 여대생이 성고문을 당했던 부천서 치욕의 사건을 보면서도 Y는 침묵으로 일관 하였던 때였다.

~~다른 기구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시달리며 권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던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위장폐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Y는 그들을 대변하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Y가 여성들의 개발교육과 시범학교나 운영등의 고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 받을만 하다. 그러나 평생, 평등한 노동권을 획득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적 운동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흐를때는 수도꼭지를 고치지 않고 아무리 그릇으로 물을 퍼낸다고 해도 물을 없앨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성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해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한다해도 그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의 역할은 구조적인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일에 여성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해결에 나설수 있도록 조직화 하는 일을 도와야 할 것이다.